

## 6. 두류의 재해

작물시험장

이영호, 김석동, 흥온희

Disasters in Food Legumes

Crop Experiment Station

Y.H. Lee, S.D. Kim, & E.H. Hong

두류 재해사례에 발생하는 재해는 환경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기상재해, 병해증 및 잡초에 의한 재해, 공해등이 있다.

### 1. 기상재해

#### 가. 찬꽃재해

두류는 화목류에 비하여 요구량이 2배 이상 높으며 또한 끓아에도 많은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찬꽃재해가 나타나기 쉽다. 생육기간중의 찬꽃의 피해는 학령 초기가 가장 크며, 따라서 이 기간의 관수 효과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의 파종기인 5~6월과 개화, 학령기인 8월상 중순에 찬꽃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 나. 습재

우리나라에서는 6~7월의 장마로 토양 수분이 과잉되어 두류의 생육 초기에 습재가 일어나기 쉽다. 흉에서 습재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생육 시기별로는 홀아 분화기의 자습시 강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두류재해 기간중 습재는 관행적으로 어렵게 해나래토에 의하여 배수를 조망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양거배수시설등의 설치에 의한 배수개선이 필요하다.

#### 다. 냉재

두류의 냉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육초기와 품숙후기에 주로 발생하여 고병지에서 개화중에도 냉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 겨울에 의하여 수량이 10% 정도 감수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50년 겨울에 의하여 도카타 지역의 경우 40%, 일본 전국은 12% 정도의 감수가 있었다.

냉재는 농작물 재배에 의하여 경감시킬 수 있으며 결초 시기 수준을 높여면 경작을 과정성을 낮아진다.

#### 라. 풍해

두류의 통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1986년 경남 통영군에서 대풍후 조사한 가로는 도록비율이 성육기부 차례없이 49%이며 영해율은 30%였고, 해안으로 우리 지역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원의 피해가 커으며 도록정도도 커하였다. 또한 풍해는 육수수 작물을 재해함으로서 종일수 있다.

### 아. 도록해

두류 재래시 도록은 여와 아람이 동안될 때 많이 발생하여 개화전 후의 도록 시 수량 감소가 크며 등속 후기의 수량 감소 정도는 적다.

또한 도록 각도가 블루록 수량 감소는 크다. 특히 학령 초기 도록 시 휴목이 크고 피종양이 많을 수록 수량 감소율이 크다고 보고되어 있다.

### 바. 우박해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5. 6월과 9.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거의 없는 편이나 여름철 우박은 두류의 생육과 수량에 피해를 준다. 우박의 피해 해도는 적영과 철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데 흥에서 영양생장 기간 중 33% 정도의 적영시는 수량에는 거의 영향을 하지 않으나 개화 초기 이후의 적영시 수량의 감수가 크다.

### 그. 병 충해

#### 가. 병해

우리나라에서 병에 의한 수량 감소 정도는 흥에서 SMV, 갈운병에서 보고되어 있으며 최대 감수율은 SMV의 87%, 갈운병에서 16.4%가 보고 되었다.

#### 나. 종 해

두류를 가해하는 해충은 많이 보고 되어 있는데 가해서 수량 감소 정도는 연구자마다 다르나 흥 씨스트선충을 경종하였을 때 최고 감수율 90%에 달한다고 보고 되어 있다.

#### 다. 꽁 해

꽁해를 원으키는 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두류에서는 주로 쟈 쟈족시 쇠풀해의 감수성정도에 관하여 보고 되어 있으며 산성 강우에 의한 흥의 수량 감수 정도는 산도가 높을 수록 커으며 영양생장기가 생식생장기 보다 크다고 보고 되어 있다.